

내가 본 한국 한국 고유의 성격문화

자연스러운 한국인

기다 에미코

〈일본, 경희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과장〉

저에게는 일본에 있었을 때부터 몇 명의 한국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해 애교를 부리다가 점점 친해지고 나서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곤 하는데, N씨는 달랐습니다. N씨는 처음부터 애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사귀어 보고 나서 알았는데 그녀는 애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 스타일을 보고 "기다씨, 그 머리 스타일 너무 이상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저도 놀랐지만, 바로 N씨가 "아! 미안, 상처 받았죠? 일본사람은 이런 말 하면 상처 받는거죠?"라고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미안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 스타일을 고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로 소논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N씨는 아기도 있는데 좀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줄까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유학 준비로 바쁜 것을 보고 "시간이 없으면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말이 너무 당당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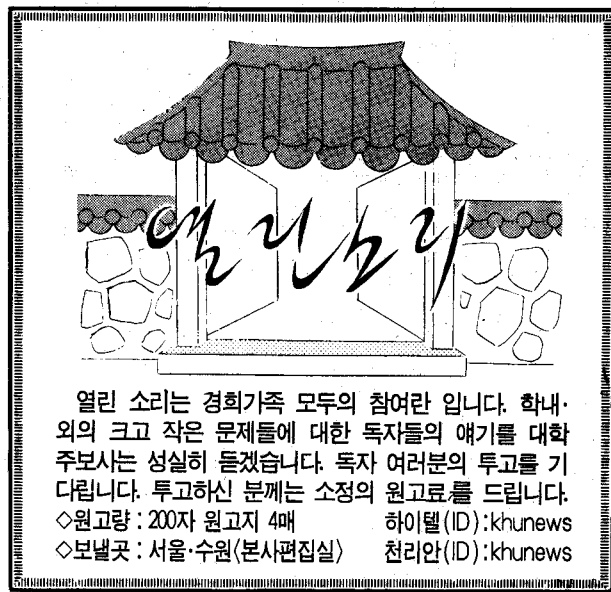
일본인이면 자기가 바쁠때 도와주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싫다는 뉘앙스로 "이제 됐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일본인의 답답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그때 한 말에서는 그렇게 싫다는 뉘앙스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바쁘지만 할 수 있어요"라고 표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고, 흔쾌히 남의 호의를 받는 강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에도 기분 좋게 받고, 도와줄 때도 기분 좋게 도와 줍니다. 그녀는 그런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됩니다. 그 사이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일본에서 만난 한국 친구와 비슷한 인간적인 강함이나 상쾌함, 그리고 솔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바로 한국사람들의 매력이었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미술사를 연구하러 한국에 왔는데 이것을 배우는 것 말고도 한국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매력을 발견해 나가고 싶습니다.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애기를 대학 주보에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khunews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khunews

도서관이용 문제많아

학생, 주인정신 요구돼

개가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가끔 "가방을 찾습니다"란 게시물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을 보면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무척 미안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가방 보관함이 있어서 이곳을 이용할 학생은 학생증을 맡기고 key를 받아 자료이용을 다 끝내고 나 갈때 key를 내주고 학생증과 교환하면 된다. 이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책가방을 그냥 바닥에 놓고 개가열람실을 이용한다. 그런데 이는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결국 칸막이가 있는 목재서가를 갖다 놓아 보았다. 그러나 가방도둑이 심하여 분실사고가 잦아지자 아예 이 칸막이가 있는 목재서가를 치워버렸다. 개가열람실에서는 정식으로 가방보관함의 이용을 바라고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학생들은 바닥에 가방을 아무렇게나 놓고 가끔 가방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값나가는 책가방이나 핸드백종류는 잘 잃어버리는 것 같다. 물론 개가열람실에서는 학생들에게 말로 주의도 주고 주의문도 붙여 보았다.

열람과 직원이 학생들이 꺼내 본 책들을 찾아다니며 배열정리하기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도서배열을 정배열할 수 없고 가배열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찾고자 하는 도서를 찾으려면 해당서가 상단에 표시된 분류번호의 범위를 넓혀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첫째 본 책은 서가의 표시대로 해당서가에 배열할 것, 둘째 책을 빼낼때 흩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빼 볼 것, 셋째 서가 본래자리에 배열할 수 없을때는 열람대 위에다가 그냥 놔둘 것, 만일 엉뚱한 곳에 배열될 경우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서도 사장되는 것까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넷째 본 책은 서가책 위 혹은 스텝위에 놓지 말 것 등을 부탁하고 싶다.

김 성 진

〈서울캠퍼스 열람과장〉

요령주의적 수강신청 학구열 의한 수강필요

지난주는 서울캠퍼스 수강신청이 있었다. 새벽에 와야만 자기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었다. 몇몇이 이런 문제가 터져나왔고 학생회측에서는 학교측에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점은 거의 없었다. 물론 학교측의 단일한 제도 운영에 문제가 크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의 고칠 점도 많을 것 같다.

수강 신청때 자신이 정말로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배우고 싶었던 과목보다는 학점에 후하게 나 교과과정이 수월한 과목 위주로 들으려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수강신청전에 묻는 것이 대개 이런 것들이기도 하다. 대학이 단지 취업을 위한 학원

이라는 인식과 학문보다는 취업능력을 기르려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이란 학문을 닦고 학문을 이끌어 나가는 장소이다.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이러한 사명이 따른다. 그러나 수강 신청때 우리 학생들의 요령주의적인 모습은 실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학생의 모습일까? 물론 비합리적인 제도가 낳은 치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에서라도 스스로의 학생 위상을 잡아야 하는 존재가 학생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학생은 수강신청에 있어 편의위주의 신청보다는 학문적 욕구를 앞세워 신청을 해야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학교에 또 국가에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의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지 더 많은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먼저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최 수 제

〈정경대 경영 3〉

불결한 화장실 환경

학생, 학교 모두 책임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교시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대체로 관리자의 소홀함과 학생들의 공공예절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특히 학교안의 화장실은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시설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화장실을 갈때마다 불편함을 겪을 때가 많다. 청소가 잘 되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나는 정도는 비밀 비재해서 무감각해져 버린지 오래이다. 가정대와 한의대를 제외한 다른 단대의 화장실은 너무 부실하다. 체육대학 지하에 있는 여자화장실에는 문고리가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또 정경대2층의 화장실에도 문 잠금장치가 고장난 것이 많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화장실에는 휴지통의 쓰레기가 항상 가득차 있다.

그러나 학교당국에서는 사소한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지 학생들의 권의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학교의 그러한 태도에는 학생들의 고통을 더 증가시킬 뿐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무엇때문에 불편해 하는지 알아보고서 고쳐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교의 책임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공공시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화장지를 마구 사용하고 사용한 휴지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학생들 때문에 화장실은 더 더러워진다. 담배재도 화장실 바닥 여기저기에 떨어져 개똥개 자국이 남아 있다. 우리 학생들도 다음 사람을 위해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허 지 선

〈지리 1〉

실질적 시설관리부족

미관보다 내실 중요해

97년은 우리학교가 교육개혁 평가를 받는 해이다. 이 평가가 앞으로 들어올 신입생들에게는 물론 전체적인 학교의 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지 학교측에서 학교 외관에 신경을 쓰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에는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사회대 지하로 내려가던중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친구가 그만 계단을 헛딛는 바람에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나고 말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의 실수려니 하며 지나가려 했는데 잘못된 친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계단의 끝 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있었고 그 계단이 부서진지는 벌써 몇개월째였다.

또 학생회관 6, 7층의 엘리베이터 버튼의 고장도 일례가 될 수 있겠다. 꽤 오래전부터 고장났고 또 나아가선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

학교의 주인은 바로 학생이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학교측에게 하지 않는 것이 학교측의 첫 번째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미관보다 내실을 중요시하는 평가로 우리 학교가 좋은성적을 받기를 바란다.

또 외관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살펴볼 줄 아는 학교측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 지 석

〈유전 2〉

고 침

제 1121호 경희발전기금 명단에 조남성 26만6백30원을 2만6천6백30원으로, 김준현 29만3백80원을 2만9천3백80원으로, 박성애 79만10원을 7만9천10원으로, 조용호 67만원을 6만7천원으로 고침니다.

도서기증자 명단

△김신(사회대 무역)교수	△송성진(사회대 회계)교수	△전익기(체과대)교수	30권
1천여권	12권	△지혜정(행정4학년)	6권
△김진국(건축)교수	△신현덕(산업정보대학원)교수	△진용욱(전자)교수	2권
53권	4백59권	△진희성(정년퇴임)교수	7백69권
△김시철(국제PEN클럽 한국본부)	2천5백여권	△최영복 사회교육원과장	2백71권
△김중섭(언어교육연구원)	10권	△최유성(원예3학년)	46권
△김지영(자연대 유전)교수	2백4권	△최재림(원예3학년)	5권
△김한원(사회대 무역)교수	43권	△한치근(전산)	26권
△김희철(건축)교수	43권	△한한수(사회대 경영)교수	1백51권
△대학원 총학생회	1백24권	△홍희기(기계)	3권
△서덕영교수	83권	△황원국(원자)교수	1권
△선우섭(체과대 체육)교수	5권	△이진호(사회대)강사	18권
		△전영중 학생처장	2백7권
		△전법진(행정4학년)	31권
		△전현(연구처 연구과장)	99권
		△전법진(행정4학년)	31권
		△전영중 학생처장	2백7권

朔風

성신여대 총학생회에서 대동계 행사중의 한가지로 콘돔을 배포하였다 하여 PC통신에 있는 토론방이 찬반은 쟁으로 수만회의 조회건수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 공식적인 신문·방송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제도권 언론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언론자유를 구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의 글에 비율은 3대 1 정도로써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의 목소리가 크다. 그렇지만 용기부족으로 긍정적 견해를 표현 못하는 소리 없는 다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 여론의 방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부정적 의견의 공통점은 "여대생이 하라는 것은 안하고, 프리섹스 풍조나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논리는 빠져있고 감정적인 비난이 주류를 이룬다. 긍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외국의 예를 들어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변호해 주거나,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식의 수정주의적 의견을 진술한다. 이 사건을 비난하는 글을 쓰는 사람은 뉘그러게 외치고 있다. 옹호하는 의견을 쓰는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패륜아로 볼까 매우 불안해하며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한다. 개성파 자신감을 주장하며 사는 신세대 토론의 자유로운 광장이라는 PC통신 안에서 우리 한국의 지난 역사를 통과해 오면서 마녀사냥에 습격하며 살던 우리의 빈약한 토론문화를 읽을 수

성 암흑세계의 반란

있다.

나는 이런 하찮은 사건이 이처럼 큰 논란의 주제가 된 충격적인 사건인 것처럼 부풀려진 것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중·고교 시절을 보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여중생 하나가 학교 화장실에서 출산한 뉴스가 나간 후에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TV토론회 있었을 때, 한 여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타당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성교육은 입시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런걸 가르치면 학부모가 자기 아이 공부 시간 뺏는다고 항의합니다." 이런 교육환경에서 한국의 나태함이 세계 제일이고, 미혼모 자녀 해외입양수 수가 세계 제일인 것은 너무

나 당연한 귀결이다.

콘돔배포는 학교당국이 40년전부터 이미 학생들을 위해 해 왔어야 할 일을 학생들이 대신한 것이다.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아무 설명이나 예고도 없이 불쑥 벌인 방법이 틀렸다"고 쓴 성신여대 한 여학생의 글도 통신상에 올라 왔었으나, 이벤트는 원래 의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성 의식의 암흑세계에서 토론의 기회를 야기시켜 준 성신여대 총학생회 간부들의 창조적이고 자구적이고 용기를 필요로 했던 거사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 작은 행사 하나로 그들의 대동계는 어느 해의 것보다 학생과 일반사회에 기여한 의미있고 자랑스런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後〉

POSCO 메시지 종강편



편식도 때로는 힘이 됩니다.

종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겠지만 이번 방학에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한가지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배낭여행, 영어회화, 농활, 연애... 그 어떤것이든 좋습니다. 한가지일에 한번 미쳐보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부딪쳐보는 겁니다.

젊은 시절 한때의 값진 경험이 인생의 산지식이 되기도 하니까요. 편식이 때로는 미처 발견치 못한 인생의 다른면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